

# 東仁文學에 나타난 基督教意識

李 菡 男\*

## I. 緒 言

근대적인 의식과 기법으로 이루어진 서구문학과 그의 잡다한 사조가 물밀듯 밀려 들어와, 비판하고 소화시킬 겨를도 없이 모방과 추종에 굽鞠했던 한국의 신문학은 일단 사상의 빙곤을 가져 왔으며, 그로 인한 문학정신의 결핍을 초래하게 되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의 근대적인 문학이 한국의 신문학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며, 그 실상을 규명하고 추적해 보는 일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심에서 부터 출발한 본고는 비록 일면적 고찰이기는 하지만, 한국 근대화의 선도적 역할을 한 기독교 정신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東仁의 작품속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추적해봄으로써, 東仁文學을 해석하는데 그 의연적 의미망을 얼마만큼 확대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탐진하여 보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사실 東仁文學의 찾다운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과 관점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東仁 자신에게 수용된 기독교 정신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 東仁에게 기독교적인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東仁과 基督教를 연결시키려는 작업은 매우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東仁이 기독교의 교리나 사상을 작품으로 형상화시키거나 작품속에 삽입하여 특수한 종교적 체험—생장환경이나

\* 博士課程(한신대 국문과)

교육환경에서 얻어진一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면, 그것은 그가 기독교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그에게는 기독교적인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東仁의 단편들 가운데 기독교를 제재로 다룬 작품이나, 세팅으로 사용한 작품을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과연 東仁는 기독교적인 의식을 지닌 작가였을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Ⅱ. 韓國文學과 基督教

17, 8세기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상륙하게 되자, 기독교는 우리 문학의 서구화, 즉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교적 도덕률과 전래의 구습에 젖어 있던 전근대적 사회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과 근대문화 형성에 이바지한 점은 매우 지대한 것이다. 당시의 기독교의 역활이 민중의 가치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과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sup>11)</sup>

특히 기독교가 신문학 발달에 미친 기초적 역할은 바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담당해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문학에 있어서 언문일치 문장의 한글을 보급시킨 공로는 매우 커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 서구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때, 그것은 종교적인 사상성에서 보다 앞서서 문학작품적인 고전과 같은 관계에서라고 할 수 있다. 신구약, 특히 구약의 많은 부분은 그 자체가 서구문학에 있어서 고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문학의 경우와는 달리, 기독교가 우리 신문학사상에 미친 영향이란 구약은 거의 제

1) 鄭漢模 교수는 그의 저서 「韓國現代詩文學史」 p. 101에서 기독교의 '영향'과 '기여'를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있다.

- ① 천주교의 전래 때에 이미 시작된 서양 내지 세계를 향하는 시야의 확대.
- ② 도덕 윤리면에서의 가치관의 변질.
- ③ 자아에 대한 각성의 촉구와 민주 의식의 자각
- ④ 교회와 학교와 성서의 삼각관계 속에서의 교육의 진흥

의된 신약 중심의 설교에 대한 맹종으로써 우리 문학사상에 영향을 가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춘원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적 의식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儒佛仙 사상에 바탕을 둔 한국고전문학에 새로운 사상으로서 나타난 이러한 기독교적 의식이 신문학 작품의 내용에 개입됨으로써 한국문학은 그 근대적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듯이 보인다.

문학가로서 최초로 기독교 사상을 작품에 도입한 이 광수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관과 민족운동에 있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가령 1922년에 발표하여 크게 사회의 물의를 있으킨 〈民族改造論〉만 해도 그 개조론을 제기한 안티·테제가 기독교적인 새로운 사상이었음을 거의 확실한 것이다.<sup>2)</sup>

기독교의 교리나 윤리관이 한국 신문학의 초기 작품에 있어서 대부분 세팅의 조건, 혹은 소도구의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春園의 「無情」, 東仁의 「弱한者の 슬픔」, 「구두」, 「유서」, 주 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등의 작품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전근대적 사회가 새로운 기독교 문화와 접목되면서 근대적 사회로 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가가 새 사회, 새 생활을 그리려고 할 때 거의 불가피하게 기독교적인 세팅이나 도구를 쓰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반면에 기독교가 사상적인 조건과 주제성으로서 표현된 것도 초기작품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春園의 「그 여자의 일생」, 「애욕의 피안」, 「유정」, 「사랑」 등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본고의 논의의 대상인 東仁의 「이 盡을」, 「明文」, 「信仰으로」 등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春園이 자기는 톨스토이의 인생관에서 종교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듯이, 東仁 자신도 그의 〈文壇三十年의 자취〉에서 톨스토이의 인격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술회하고 있다.

다만 東仁에게 기독교적인 의식이나 톨스토이의 영향이 春園과 같이

2) 白鐵, 기독교와 한국의 현대소설, 동서문화 창간호 1967

박애사상, 인도주의, 계몽성 등으로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은 당시의 東仁이 취하고 있었던 문학적 자세가 主因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春園과 東仁을 비롯한 당시의 많은 文人們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외래 사조의 하나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새시대의 근대적인 의식과 함께 매우 높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에는 과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 ■. 東仁과 基督教

東仁의 작가의식 가운데 기독교적 의식이 얼마만큼이나 수용되어 있을까 하는 일차적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다음의 자료들을 통하여 東仁의 주변사정—특히 기독교와 관련된—을 추적하여 종합해 보고, 東仁 역시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작가임을 증명코자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자료들을 확인하고 아울러 미비한 점을 보완키 위하여 미망인 김경애 여사와 면담<sup>3)</sup>하였음을 밝혀둔다.

- ① 東仁은 1900년 10월 2일 평양 진석동 교회의 장로요, 명망 높은 부호였던 김대윤의 둘째 아들로 태어 났다.(정한숙, 신문학의 디몽, 한국의 인간상 V 소수, 신구문화사, 1965. p. 525)
- ② 그렇던 개구장이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예수교 계통이었던 충실학교에 다니게 되었다.(상계서, p. 526)
- ③ 그 해 봄(1930년 : 필자주) 그는 인생의 재출발로 새로운 배우자를 맞게 되었다. 평안남도 용강 출신의 농가의 장녀로서, 외조모 밑에서 평양 중의 여학교를 졸업한 김경애다.(상계서, p. 532)
- ④ 「창조」 창간호에는 요한의 시 <불놀이>와 전영택의 소설, 최승만의 회곡, 내(東仁 : 필자주) 소설 등으로 인쇄는 橫濱에 있는 「복음 인쇄소」에 맡겼다. 「복음 인쇄소」는 조선 성경을 인쇄한 곳이다.(金東仁, 문단 30년의 자취, 東仁全集 卷八, 소수 흥자출판사, 1967. p. 384)
- ⑤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동경 조선인 유학생 선교 목사로 동경에 주재하게 된 관계로……본국서도 같은 소학교(중등학교의 전신인 예수교 소학교)에 다녔

3) 1979년 6월 3일 09시 40분부터 10시 20분 까지 필자와 대화를 나누었음.  
대화 내용을 篡함에 있음.

었다. (상계서, p. 390)

⑥ 톨스토이라는 인적은 내(東仁: 필자주)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상계서 p. 394)

⑦ 예수교의 성경에도 「그」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간간 사용되었다. (상계서, p. 395)

⑧ 표준어(경기말)의 지식은 예수교 성경에서 배운 것 뿐이라……(상계서, p. 395)

⑨ 성경 귀절에 있느니 가로되어 「도야지에게 진주를 먼저 주지 말라. 도야지는 진주의 그 무엇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영양부족으로 죽은 도향의 비석에 이句 한글을 새겨 주고 싶다. (상계서, p. 421)

⑩ 잡지의 이름은 「창조」라 하기로(처음에는 요한이 「창조」는 종교 냄새가 있다고 약간 반대하였지만)……(상계서, p. 381)

⑪ 「우리 方선생은 본시 크리스챤이니까 개과할 가망도 많지만 김선생(즉 나)은 아주 악질 부랑자니까, 애전에 분홍치마 적에 갈라지는 편이 상책이라. —春江女史續(상계서, p. 452)

⑫ 춘원은 흰 면위에 흰 선을 그으려 한데 반하여 늘봄은 악의 더러운 면으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깨닫게 하였다. 춘원은 「바울」임에 반하여 늘봄은 「베드로」였다. (金東仁, 한국근대소설고, 상계서 p. 597)

⑬ 냉정한 자기 비판안을 내게 주신 신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계서, p. 605)

⑭ 성경에 「기다리는 자는 성공함을 보리라」 하였으니……(상계서, p. 606)

⑮ 득실한 예수교 신자의 집안이기도 했다. (채훈, 1920년대 한국작가연구, 1978, p. 17)

⑯ 「소설가 김 동인을 시다. 바로 평양 김 동원 장로 아우요」(윤홍로의, 현대한국 작가연구, 민음사 1976, p. 40)

⑰ 부친은 오랫동안 평안교회의 초대 장로로서 활동한 바 있는 연유로 동인은 어려서 유아세례를 받았었다. 그러나 동인은 교회 예배를 참석한 적이 없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문학적인 흥미밖에 없었다고 한다. 동인은 기독교계 학교인 중에서 소학교를 요한보다 한 해 앞서 졸업했다. (註: 본문은 「文學思想」 2편에 실린 부인 김영애 여사의 증언을 박현숙의 기록으로 되어 있으나, 주요 한은 필자와의 대담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연세로 보아서 동인 부친이 장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동인의 이복형 김 동원이 장로였다고 엇갈린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동인이 기독교 가문 출신이냐? 아니면 단순히 이복형 만이 기독교 신자냐를 확인하는 것은 東仁論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계서, p. 42)

⑯ 동인의 이복형 동원은 조 만식, 오 윤선 등과 함께 평양 山井峴교회 장로였

다. 東元은 항일 민족지도자로 착실한 기독교 장로였고……해방 후 국회 부의장 까지 지낸 정치가이기도 했다.(상계서, p. 43)

⑩ 기독교계의 승덕 소학교를 졸업(1972?)하고 이듬해 역시 미손제 외국인이 경영하는 평양 숭실 중학에서 잠시 수업한 일이 있었다.……미손제 중학의 중요 과목인 성경 시험을 치는 어느 시간이었다. 성경시험은 자주 치러야만 했다. 그러나 유아독존식 사상으로 길러진 동인이 누구를 전심전력 섬긴다는 것은 탐탁치 않았다. 더욱 보이지 않는 신에게 믿음을 강요받는 것은 어린 동인에게 별로 취미가 안가는지라 책을 넘기시며 시험을 쳤다.(상계서, p. 43)

㉙ 다음의 내용은 김경애여사와의 면담 내용이다.

① 아버지 김 대윤과 이복형 김 동원 두분 다 장로였다.

② 어머니도 교회에 나가셨다.

③ 김여사 자신도 교회를 나갔는데, 東仁이 가끔 김여사가 아침 일찍 예배당 나가는 것을 숨어 했으며, 더 늙어서 나가기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 당시 교적은 정동교회였다고 한다.

④ 동인은 평상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교회 출석은 하지 않았고 성경은 들 읽었다고 했다.

⑤ 현재 김여사는 왕십리 감리교회의 집사이며 전주 예수병원에 근무 중인 아들 역시 집사이며 딸들도 교회를 나간다고 했다.

⑥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되는 것은, 東仁이 심한 병고에 시달리던 6.25직전에 상왕십리 부근에 있던 어느 교회 부흥회에 東仁이 나가서 간곡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출해 낼 수가 있다.

(1) 東仁의 부친 김 대윤은 평양 진석동교회 장로였다.

(2) 東仁의 이복형 동원은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였다.

(3) 모친 또한 교인이었다.

(4) 東仁은 유아세례를 받았다.

(5) 東仁은 기독교계 학교인 승덕소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역시 미손제 외국인이 경영하는 평양 숭실중학교에서 수학하고 기독교계 통인 명치학원을 다녔다.

(6) 東仁은 성경을 탐독하여 성경에 대하여 박식하였는데, 이러한 東仁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종교적 신앙심에서라기 보다는 문학적 관심에 더 큰 비중

을 두고 출발된 듯 싶다.

- (7) 미혼체인 평양 숭의여학교를 졸업한 김경애여사와 제혼(1930년), 현재 김여사는 왕십리 감리교회 집사이다.  
 (8) 그의 주변에서 가까이 지내던 文友들은 선교사의 아들이며 신자인 요한, 목사인 늘봄, 신자였던 방인근 등이 있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보건대 東仁의 의식 가운데 기독교적인 의식이 스며들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東仁이 표면적으로 기독교 신자였건 아니였건 간에 그의 생장과정, 교육환경, 교우관계 등 주변적인 상황이 한 작가로서 기독교적인 체험을 자기 작품에 반영시킬 충분한 근거는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東仁의 작품들을 볼 때, 그의 「약한자의 슬픔」, 「구두」, 「유서」등은 세팅이나 소도구로 기독교가 등장하고 있는 작품이고 「이 찬을」, 「明文」, 「信仰으로」등은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의식(혹은 사상)이 작품 전체에, 그리고 작품의 주제로 수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항에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 IV. 그의 作品에 나타난 基督教意識

##### 1. 「이 畫을」

이 작품은 짧막한 단편으로서 <개벽>(1923. 1)에 발표된 작품이다. 성경의 내용을 소설화한 東仁의 유일한 작품으로 성경의 소설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東仁이 일찍이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은 성경의 다음 장면들이다.

###### (1) 최후의 만찬 장면

(마가복음 14 : 12~26/누가복음 22 : 14~23/요한복음 13 : 21~17 : 26/고린토 전서 11 : 23~25/마태복음 26 : 17~30)

###### (2) 베드로의 장담 장면

(마가복음 14 : 27~31/ 누가복음 22 : 31~34/ 요한복음 13 : 36~38/마태복음 26 : 31~35)

## (3) 계세 마니에서의 기도 장면

(마가복음 14:32~42/누가복음 22:39~46/마태복음 26:36~46)

이 부분들은 사실상 서구문학에서 많이 다룬 성경 가운데 가장 극적 긴장감이 있는, 예수가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이다.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음악, 연극, 영화 등에서도 즐겨 다루는 부분이다. 이러한 극적 장면을 1920년 초반에 작품화하였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여 과히 무리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 작품에서 예수는 고통과 번민을 거듭하며 자기희생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을 한다. 그러한 고민이 절정에 이르러 예수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작품과 성경을 통하여 비교해 볼 때, 성경이 한 작가의 의식을 거쳐 어떻게 문학작품으로 변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 볼 수 있다.

하느님이여! 여호바여! 바랍니다. 참으로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참혹한 잔을 제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된다고는 너무 혹독한 일이외다 아멘.(작품「이 잔을」에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기도하셨다(마태복음 26:42 중에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저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말씀하셨다.(마가복음 14:36 중에서)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저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누가복음 22:42 중에서)

“아버지께서 니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하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8:11 중에서)

이상과 같이 작품「이 잔을」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상과 작품에 나타난 예수상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는 자기의 고난과 회생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 들이어, 자기 앞에 전개될 세계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작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는 부분을 제거하여 예수를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구세주로 형상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수를 좀 더 인간화시키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당시 東仁이 지향하고 있던 자연주의적인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東仁이 春園의 「단종애사」를 비난하면서 내놓은 「대수양」에서 보인 작가적 자세와 동체를 이룬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의 제목 「이 잔을」은 성경귀절에서 차용한 것으로, ‘잔’의 이미지는 ‘고난과 회생’임을 알 수 있다.

## 2. 「明 文」

이作品은 「이 잔을」이 발표된 2년 뒤에 〈개벽〉(1925. 1)지에 발표된 작품이다.

「明文」에서의 아들 전주사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전래적인 샤만 신봉자인 부친과 자식만을 기다리는 노망한 모친과 대결을 한다. 전통적인 당시의 유교적 이념과 기독교적인 이념과의 갈등을 아버지와 아들을 대결시키는 것으로 그 작품의 구조를 삼고 있다.

전주사의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의 인복대감을 설득하지 못하고 만다. 전주사는 노쇠한 모친을 하루 속히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도 그러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친의 안락사를 시도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법은 전주사를 존속살인죄로 판정하여 그를 사형시킨다. 전주사의 영혼은 천당에 올라 가지만 그곳 재판관에게마저 계명(기독교의)을 어긴 죄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러한 작품의 결말은 결국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 온 이후 이 작품

이 발표될 당시에 얼마나 잘못 인식되고 맹목적이었던가 하는 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과 오해된 신앙의 허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작가적 자세를 볼 수 있다.

윤 흥로교수는 그의 저서<sup>4)</sup>에서 이 작품을 평하기를 “자연주의적 경향이 짙어 기독교 신자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기독교 교리 자체나 기독교 신자를 조롱 애유하였다고 하기보다는 맹신적이며 샤만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받아드린 한국 기독교의 초대 신자들의 신앙적 자세를 대표한 인물로 전주사를 설정하고 전주사의 맹신을 내세워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적 자세의 의미를 보여 주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 한다.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천당 재판 장면은 결국 이러한 의견을 뒷침을 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자체를 풍자하거나 조롱하였다기보다는 당시에 잘못 인식되어 오해되고 있는 기독교를 그 수용자로부터 경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신앙을 작품의 주제성으로 다루려는 작가적 의도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줄 안다.

### 3. 「信仰으로」

이 작품은 조선일보(1930. 12. 17~29)에 연재된 절대신앙의 색채를 띤 작품으로, 동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의식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에 가장 적당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동인은 이 작품을 통하여 「明文」에서처럼 맹목적인 신앙을 애유했다던가, 절도 없이 방황하는 영혼으로써의 무력한 자아를 조소하기 위하여 여주인공 은희를 창조해낸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품의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信仰으로」의 ‘으로’라는 조사는 유래격, 원인격, 자격격, 변성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향진격으로 사용된 것이며, 어린 은희가 차츰 나이 들어가는 오랜 세월동안 끊임없는 신앙의 시련을 겪다가 드디어 원숙한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

4) 尹弘老와, 김동인론, 현대한국작가연구 소수, 민음사 1976, p. 85.

을 보여주는 작품인 것이다. 동생 만수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나이 어린 은희가 순간적으로 신앙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방황하는 영혼으로 본다거나 무력한 자아로 보기에는 은희의 나이가 너무도 어렸다. 이것은 작가가 여주인공을 원숙한 신앙의 경지로 끌고 가기 위한 위기의 한 과정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작품에 나온 첫번째 ‘죽음’에서 일어난 은희의 심적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이 작품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 된다고 생각된다. 만약 어느 정도 완성된 인격체로서, 객관적으로 내적 질서가 확립된 인물이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회의와 심적 갈등에 빠졌다 고 하면 후에 그 인물은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여주인공 은희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는 심적 갈등에 도 불구하고 생활화 내지 습관화<sup>5)</sup>되어 있었던 교회출석과 교회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통한 인격완성에 노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내적 갈등이 극대화되어 예수를 비난하는 자에게는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를 옹호하는 자에게는 예수를 비난하는 이중성 dualism을 지닌다. 은희는 차츰 냉철하고 이지적인 성격으로 변모한다. 東仁의 자연주의적 수법이 은희의 성격화characterization에서도 철저히 작용하고 있

5) ① 파스칼, 광세 89, 윤유문화사, 1959, p. 67.

“습관은 우리의 천성이다. 신앙에 습관된 사람은 그것(신앙)을 믿고, 벌써 지옥을 무서워 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물을 믿지 않는다.(하략)” 여기서 은희가 필립의 죽음과 천당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신앙심이라는 가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2권 제1장, 세계사상교양전집 후기 I 소수, 윤유문화사, 1970, p. 203.

“즉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있다. 지적인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하여 발생도 하고 성장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요한다) 한편 도덕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그런 까닭에 「에티케」(도덕적, 윤리적)란 명칭은 「에토스」(습관)란 말을 조금만 고쳐서 만들 어진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도덕적인 그 어느 것이나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여기서 여주인공 은희의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를 출석한다든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만수의 죽음에서 은희의 아버지가 보이는 ‘참 믿음’의 경지는 종국적으로 은희가 도달할 경지로 이 작품에 있어서 복선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은희의 내적질서는 만수의 죽음을 모티브로 하여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극대화이지, 그것을 은희의 신앙심의 문제로 귀결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치 가운데서 꽤 나가는 거니깐 하나님을 힘 입을 밖에야 다른 도리가 없지. (『신앙으로』 三中堂문고판 중에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만약 이 어린애를 저의 집안에 그냥 살려 두어 주시는 것이 아버님의 뜻에 과히 거슬리지 않거든 아버님의 이 충성된 종을 위하여 여하(상계서)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며……(상계서)

신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확고한 내세관을 가진 은희 아버지의 최고의 좋은 결국 은희가 도달할 경지인 것이다.

키에르·케코울의 ‘실존’의 3단계인 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은 이 작품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결혼하기 전 어린 시절에 은희가 추구하던 신예의 기대와 열의에 찬 교회생활은 미적 실존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하여 남편과의 생활속에서 은희는 윤리적 실존을 체험한다. 다음으로 신과 동물과의 중간 존재자로서 미약한 인간을 절실히 깨닫고 자기의 과오를 참회하고 돌아오는 인간 redemptive character으로서 절대자의 품에 자아를 내동댕이치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작품은 3분 된다고 할 수 있다.

6) 칼·야스퍼스, 철학입문, 윤유문화사, 1969, p. 48의 키절을 통하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를 절대적 신앙심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귀절은 다음과 같다.  
“종합해 말한다면 神性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아무 형상과 모양도 만들지 말라」——「한분 하나님」이라는 요구아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키의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작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사랑’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고자 한다.

기독교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비롯되었으며 신약성서 기록에 있어서 그리스어가 사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부터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랑’의 개념 역시 희랍적 사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자로서 항상 자기에게 모자라는 점을 찾아 해매며 갈구하는 욕망이 있다. 물질세계 material에 속해 있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이데아(idea)의 세계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이데아 지향적인 행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전 과정을 에로스(eros)라고 규정짓고 이것을 ‘종교’라는 단적인 표현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그리스 신화 myth에 나타난 아프로디테와 동행하는 에로스의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프라토닉·러브 platonic love와 對位에 놓인 이성지간의 사랑을 통칭하는 것이며 개념상으로 보아 이보다 하위개념에 속하는 애피투미아 epithumia( $\epsilon \pi i \theta u p i a$ )는 정욕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데아에서 물질세계로의 지향적인,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아가페 agape( $\alpha \gamma \alpha p e$ )는 ‘福音’을 뜻하는 것으로써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가페와 에로스와의 중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아 philia( $\phi i l i a$ )는 우애, 친애의 개념을 지닌 정체 balance된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사랑’에 대한 소박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작품의 여주인공 은희가 그녀의 전 성장과정에서 체험한 신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점검하여 볼 때, 그녀의 ‘사랑’에의 의식은 (물론 이것은 작가의 의식이기도 하겠지만) 적절히 구분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여주인공 은희가 체험한 두가지의 죽음의 대상, 즉 만수와 필립과의 관계는 필리아 philia적인 관계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은희가 결혼함으로써 생긴 남편과의 관계는 에로스 eros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예수의 초상화와 은희와의 관계로, 은희의 환상장면은 濡神的인 이미지로 해석하기 보

다는 에로스적이며 에피투미아의 경지로 해석될 때 이 작품의 성격은 더욱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절대적인 신앙에의 回歸를 주장하여, 그 결말을 아가페적인 경지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고 볼 때, 東仁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의식은 매우 엄숙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그는 어느덧 그 존영을 끌어다가 뺨에 대고 정신없이 그 존영에다가 자기의 「처녀의 부드러운 뺨」을 비비고 있던 것이다. (『신앙으로』 삼중당문고 017, p. 186에서)

그리스도의 예쁘장한 화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하여 괴상한 감정이 북받치려 할 때에……(상계서 중에서)

온희가 지닌 신에 대한 태도는 경건과 존엄의 우상적인 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자도 아니요, 신도 아니요, 한 개의 미남자에 지나지 못하였다.” 신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에 번민하고 濡神의인 자기 행위를 질책하기 위하여 온희는 교회출석을 그만둔다. 이러한 온희의 태도는 믿음이 열은 자로서의 행동이라고 해석되기에에는 너무도 신에 대한 절대성,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의 경지로 믿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의 태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역을 침범하였다는 심한 자책은 신실치 못한 탓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강한 신앙에의 회귀로 해석될 때 순수성을 지키려는 온희의 믿음은 한결 돋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순간의 에피투미아적인 신에의 사랑에 크게 자책을 느낀 온희는 아가페적인 강한 믿음으로 절대자에게로 되돌아 가는 것이며 드디어 인간과 신과의 정제된 관계가 성립되어 최고의 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해당초 구조인 것이다.

한편 필립의 임종장면에 의사를 등장시키지 아니하고 목사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어디로 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될 문제인 것이다. 온희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는 현세에 있지 아니하고 내세에 있었으며 천당에 있었다. 인간이 지닌 한계성 앞에서, 겸허하고 두려움의 자세로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것은 당위적인 사실임에 틀림 없다.

이상 東仁의 작품 3편을 통하여 그의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의식을 검토함과 아울러 東仁의 작가의식 가운데 일면인 기독교적 의식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東仁은 기독교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음에 틀림없다는 것이 본고의 소론이며 이러한 그의 기독교관이 춘원의 경우에서처럼 활발히 나타나지 못한 것은 東仁이 표방했던 자연주의적인 색채 때문이 아닐까 한다. 즉 동인의 기독교적인 의식은 자연주의 수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춘원과 같이 구체적인 기록이나 활동이 없는 東仁에게는 이러한 논지가 허구가 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통하여 그의 작가의식을 분석할 때 이러한 논거가 전혀 희박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한국문학에 기여한 기독교에 관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어 신학적인 입장과 아울러 고찰해 보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 V. 結 言

지금까지 기독교 정신이 이 땅에 수용되어 한 작가의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탐색해 봄으로써 東仁文學 해석에 있어서 그의 연적 확대가 가능한지를 탐진하여 보았다.

東仁은 그의 생장환경이나 교육환경에서 얻은 종교적인 체험을 그의 작품에 수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듯하며 동시에 동인의 작품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도 의의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주의 계열, 예술지상주의 계열 등과 같이, 그의 작품을 분류하던 종래의 방법에 기독교를 제재로 다룬 작품들을 한 계열로 독립하여 구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봉구외, 한국인과 문학사상, 일조각, 1964.
- 김상태, 동인의 단편소설고, 국어국문학 V 46. 1962. 12.
- 김수업, 동인단편연구, 어문학 18, 한국어문학회, 1968. 5.
- 김억, 김동인론, 동광 V 3-11. 1931. 11.
- 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7.
-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8.
- 김홍규, 황제한 삶과 영웅주의, 문학과 지성 1977. 봄.
-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70.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7.
- 전영택, 김동인론, 조선문단, V 9.
- 정한숙외, 한국의 인간상, 신구문화사 1965.
- 정한숙, 현대한국작가론 고대출판부, 1977.
- 조연현, 현대한국작가론, 문명사, 1970.
- 윤홍로외, 현대한국작가연구, 민음사, 1976.
- 채훈, 1920년대 한국작가연구, 일지사, 1978.
- 최재희, 윤리학원론, 일신사, 1958.
- 파스칼, 광세, 을유문화사, 1959.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을유문화사, 1970.
- 칼·야스페스, 철학입문, 을유문화사, 1969.